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다산 정약용은 19세기 초엽 해방이 강진 고을에서 유배살이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폐족의 신세로 절망에 빠져있을 고향의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가 없었다. 원격수업이라고 할 편지를 통한 아들 교육에 온 정성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1802년 12월 22일 (음력)자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전해지고 있다. "의원이 3대를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주는 약을 먹지 않은 것처럼 문장 또한 그렇다." 확정된 원직이 아니지만 인류의 오랜 경험적에서 나온 말이니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의원이 대를 이어 집안의 비법을 전수하여 경험이 축적되면 더 정교한 의술을 펼칠 수 있듯이 문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증조부-조부-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에 걸쳐 문장에 뛰어난 선조들이 있어 그들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고 집안 장서들을 활용해 야만 더 큰 학자가 되고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물론 돌연변이야 언제라도 있기 마련이지만 대체로 우리의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

호남문학의 전통과 한강의 노벨상

했다. 경천동지의 엄청난 뉴스였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가 환희와 쾌감을 느끼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영광이요 우리 광주의 대영광이었다. 아시아에서도 여성 수상자로는 처음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노벨문학상을 우리 호남 출신이 받았다는 데서 크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문장도 또한 그렇다"라는 다산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꺼내야만 했다. 일제 이항-하서 김인후-고봉 기대승-미암 유희춘 등의 탁월한 호남 출신의 학자이자 문장가들의 전통이 서려 있는 곳이 호남이다. 늙제 박상-면양전 승순-석천 임억령-송강 정철-백호 임제-육봉 백광훈-고산 윤선도 등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 문장가들이 호남 문학의 전통을 세웠던 분들이다. 영의정 박손, 의병장 고경명도 또한 조선을 대표하던 시인이었다. 16-17세기의 학자 문인의 전통을 이어서 19세기 조선 최고의 학자는 이론 없이 노사 기정진이요, 구례에서 살았던 매천 황현은 조선 최후의 대시인이었다.
이상의 학문과 문학의 전통이 이어져 오던 호남에는 현대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시인 소설가들이 배출되었다. 다른 작가를 경멸할 필요도 없이 원로 소설가 한승원 작가의 딸이 바로 한강이 아닌가. 3대 의원, 3대 문장가가 아니라 수백년, 수십 대의 의원 집안, 문장가의 집안인 호남이라는 문학적 전통 아래서 한강이라는 작가정신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랜 문학적 전통을 이어오던 호남에는 국가폭력이라는 가혹한 탄압에 가장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던 역사적 비극에

시달린 아픔이 있었다. 4·3, 여순 사건, 5·18 등 20세기의 학살사건은 주로 호남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강의 문학정신은 호남의 문학 전통과 역사적 비극의 피해와 상처를 극복하려는 트라우마 치유 정신에서 이룩된 위대한 작가정신의 결과였다.
5·18, 4·3, 여순 사건 등 호남 땅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이 양민을 학살한 진실을 감추고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둔갑해 2중, 3중의 가해를 아직도 그치지 않는 오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런 모든 가면을 말끔히 씻어줄 세기의 쾌거였다.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중무장한 계엄군이 무차별 발사로 양민들을 학살하고도 자위권의 발동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부끄럼 없이 조잘대던 그들의 입은 이제 다시는 열 수 없이 자물쇠로 막아버렸다. '소년이 온다'는 5·18 희생자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전 세계 인류에게 공감하도록 생생한 실상을 알렸으니 당사자들이야 얼마나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위대하고 장하다. 한강 작가!
빨갱이들의 무장 폭동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40년이 넘도록 살아온 5·18 희생자들, 이미 산화해버린 시민군 영령들, 우리는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모든 누명을 벗고, 국가폭력에 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한 민주투사였음을 세계인들이 인식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죽은 자들의 영혼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산 자들은 더한층 민주주의의 수호에 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굳게 해 줄 것이다. 한강 작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세요. (1948년 8월까지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했다)

社說

총장로 역사·문화지구와 연계해 활성화

광주와 전남의 최대 상권이자, 호남 정치와 문화·경제의 상징이었던 총장로가 옛 영화를 잃은 채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 총장로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상권은 아직도 규모면에서는 광주지역 최대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이나 금융기관 존치 등의 면에서는 다른 지역 상권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로 상권의 위축은 도심 빌딩 노후화와 인구 감소, 교통 여건의 불편성 등 구도심 쇠락과 연동된 흐름인 만큼 동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함께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 지역 주요상권 동향(2022년 기준)'에 따르면 주요 상권 사업체 수는 2만 2658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총장로 상점가가 3335개로 가장 많았고 첨단 젊음의거리(2291개), 금남로 상점가(1416개), 수완 나들목(1381개) 순이었다. 종사자 수에서도 총장로 상점가는 4469명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첨단 젊음의거리(4135명), 상무역 일대(4089명), 금남로 상점가(4040명) 순이었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총장로 상점가의 점포 수와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출액만을 놓고 보면 이미 상무지구 상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구도심 중앙에 위치한 총장로 상점가와 금남로 상점가의 점포 수와 종사자 수를 합하면 다른 상권의 2배에 달하는 만큼 중소상인과 취업률을 고려해 총장로·금남로 상권을 부활시키거나 적어도 더 이상의 쇠락만은 막아야 한다.
총장로와 금남로 상권은 타 지역 구도심과 다르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가톨릭센터(현 5·18기록관) 등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인 대인시장, 양림동·동명동 등 근대 역사문화지구와도 연결돼 있다. 광주 동구 일원의 역사·문화적 자원과 총장로 일대를 아우를 상권 회복 프로젝트가 시급하다.

고객 분양가에 하자는 나 몰라라 해서야

을 들어 신규 아파트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분양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하자 투성이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무안 오통지구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사전 점검에서 하자가 무려 5만여 건이나 발견돼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인데도 건물 벽면이 휘고 계단 타일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건설사 대표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도 다량의 하자가 발견돼 준공 승인이 거절됐다. 엘리베이터와 벽, 기둥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가 확인돼 관할 구청이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400세대 규모의 입주 3년차인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장만이 우그러지고 천장에 얼룩이 지는 하자에도 시공

사가 보증 기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통계이지만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3072건이던 것이 지난해 3313건에 이어 올해는 8월 기준 3199건으로 연말에는 47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자는 보통 입주를 한달 앞둔 사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더라도 시공사가 전문가격증 소지 여부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다.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900여만 원에 육박할 정도인데 시공사들이 하자는 나 몰라라 한다면 명백한 책임 회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괜찮은 하자'란 없다는 자세로 책임 시공에 임해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딩 빈 마당, 양마당을 가로질러 빨랫줄이 처마 밑에서 행랑채로 길게 늘어져 있다. 작열하는 태양에 지친 일상을 만끽이라도 하듯 바지랑대에 기대어 빨랫줄이 축 늘어진 채, 즐기고 있다.
언뜻 보면 지나쳤을 것이다. 빨랫줄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늘 그랬다. 존재하고도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일쑤인 것이 집계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늘 거기에 있어서 딱히 시선을 집중하고 자세히 살피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았다. 내면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빨랫줄에 매달린 집계, 아내다.
심심풀이로 시작한 일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낚시가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낚시는 내 전부였다. 주종도 부족해 주말이면 1박 2일로 다녔다. 그렇게 낚시에 빠졌다가 희뿌연게 동이 트고서야 허겁지겁 직장으로 출근하기를 여러 날. 너끈히 두어 계절이 바뀐 어느 날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집이 굳게 잠겨있었다. 친구들과 처가에 부러부러 전화했으나 아내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집계

늦은 밤, 아이를 업고 들어온 아내의 뒷배에도 시골 아버지의 제사가 다녀온 길이었다. 아이를 업고 시골에서 보내준 여러 물건을 양손에 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한사코 밖으로 나가려는 나를 아내의 내 몸속의 사행심이 빠져나갈 때까지 지긋하게 기다려주었다. 아내 덕분에 나는 낚시를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기일이나 간혹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낚시바늘 같은 집계가 아직도 나를 꼬집고 있다.
빨랫줄에 걸린 분신들, 빨래들이 바람에 팔랑거린다. 국수 다발처럼 하얀 기저귀 수십 장이 바람을 만들 어내면, 누이의 새하얀 옷들과 내 구멍 난 팬티가 어머니의 색동저고리와 형의 낡은 잠바 사이에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가 숨었다. 그리고 보면 빨랫줄에는 빨래만 널려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패하지 않고 잘 건조되도록 한 가족의 삶이 오롯이 걸려 있었다.
낚시에서 벗어난 나는 이번에는 친구, 아니 술에 빠지고 말았다. 정이 오고 가듯 술 또한 주고받는 것이어서, 자연히 과음하게 되었다. 술 마시는 친구끼리 만남이 잦아지면 나는 나대로 친구를 불러내고, 친구는 친구대로 술친구를 끌어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1차가 2차가 되고, 2차가 3차가 되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의 숫자는 물론 관계도 깊어져 늘어났다. 음당 시간과 양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얽히는 일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술의 마법, 아니 술의 부작용이다.
사람에 멩고, 술에 두들겨 맞아서 비틀거리며 들

어울 때마다 아내의 술을 닦한 적은 없었다. 내 인격을 애써 추켜올리며 술로 인해 내 격에 흠이 가지 않도록 술을 다스리도록 해주었다. 술 한잔할 때나 집에 돌아올 즈음에 나는 늘 내 마음 한구석을 꼭 붙들고 있는 아내의 집계를 생각하고 내 몸을 곧추 바로잡았다.
등산이나 야구 동호회에 빠져서도 나는 한시도 빨랫줄에 매달려 있으려 하지 않았다. 계다가 수시로 부는 유행 또한 내 마음을 부풀려 내가 멀리 날아가도록 유혹했다. 그때마다 아내의 고독을 외면한 채, 나는 아주 멀리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날아가는 탈출의 꿈을 펼치곤 했다. 그렇게 나는 빨래였고 아내는 언제나 집계였다. 바람 따라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가고자 빨래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집계는 두 뺨기가 망가지도록 빨래만을 붙들었을 것이다.
내 몸을 가득 채운 허욕의 물이 적잖게 무거웠을 터이지만, 빨래 속의 욕망이 증발해 가볍게 팔러일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저리 가녀린 손목으로, 가녀린 몸으로 튼튼히도 나를 붙들 수 있었을까.
요즘의 집계들은 잘도 부서진다. 그래서인지 쉽게 헤어지는 신혼부부들도 많다. 어쩔 내 아내의 집계가 진실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진즉에도 시공창에 떨어져 썩어 분토러졌을 것이다.
나와 아내가 이성을 다하고 분리될 때, 내가 저 푸른 하늘로 날아갈 때, 저 집계는 정녕 나를 아프지 않게(?) 놓아줄 수 있을까. 집계의 약력이 견딜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잠깐의 빨래가 될 일이다.

기고

전남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현안 과제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

탄소 중립이 국제적인 과제로 떠오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RE100, 탄소국경세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철강·플랜트·전기·IT 등 연관산업 기반이 우수한 우리나라도 해상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전국 보급용량은 총 124MW로 발전사업허가 대비 0.4%에 불과하다. 2024년 9월 현재 전국 발전사업허가는 총 91개 사업 30.5GW로 그 중에서도 전남은 57개소 18.4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허가돼 있다.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은 균등화발전비용 하락의 전제조건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 및 배후부지 개발, 국내 공급망 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와의 격차를 줄여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풍력을 단순히 재생에너지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제2대 국회에서 다시는

의될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계획입지가 도입되기 전 이미 우수한 입지를 기존 사업자들이 선점하고 있어 정부주도 신규 계획입지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기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권 보장이 일부 필요하다. 기존의 모든 사업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을 세워 신속한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추진의 난제인 어업인 보상,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 등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권한이 필수적이다.
해상풍력을 신속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진행 중인 발전사업자의 사업권(재산권) 인정 여부, 우대 조항의 내용과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우대를 일부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와 해양권, 어민 피해 등을 감안해 재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해상풍력사업에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환경부, 어민들의 주민수용성 개선을 우선하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허가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대부분 해외투자사가 포함돼 있어, 기존 인허가가 불인정 되고 재인허가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제소송으로 번질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계획입지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주민 수용성 확보를 담당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속한 보급 확대이다. 통상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준공되려면 타당성 분석을 거쳐 건설·준공까지 약 6년 이상이 소모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주도로 주민수용성을 확보, 인허가 의제를 거친다면 사업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바다가 해상풍력의 '기회의 바다'로 거듭나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국내기술 개발 및 연관산업 성장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원은 신안 8.2GW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풍력 블레이드 성형용 금형제조 기술개발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지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해상풍력 세계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제2의 반도체 산업, 제2의 자동차 산업으로 해상풍력산업이 자리매김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無等鼓

매년 이맘때 일간지 신문에는 신춘문예 신춘문예 공모를 알리는 사고(社告)가 게재된다. 신춘문예는 한 해를 장식하는 문화행사이자 새해를 여는 뜻 깊은 문학축제이기도 하다. 문학은 모든 예술의 근본이자 사람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장르다. 누구나 창작과 향유가 가능한 보편적, 개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올해 신문사를 신춘문예 사고는 유독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과 연계한 문학의 힘, 글쓰기의 힘을 강조한 문구들이다. 한강이 세계적 인 작가로 성장하기까지 신춘문예는 문학 인생에 있어 중요한 관문이었을 것이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소설을 쓰며 작가의 꿈을 키웠던 한강의 사례는 문학청년들에게 도전의 용기를 준다.
예비 작가들의 문학축제인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도 얼마 전 시, 소설, 동화 공모(12월 5일 마감)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본사 신춘문예는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왔다. 사실 문학청년들의 한결 같은 꿈은 바로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데뷔하는 것이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문학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올해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어느 해보다 높다. 광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한강 작가에게 고향 광주와 남도는 문학계 자랑분이 됐을 것이다.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가 밝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의 뿌리가 광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소년이 온다'는 광주 5·18의 비극과 슬픔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이다. 신춘문예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학 잔치다. 문학계 일각에서는 여러 이유로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춘문예 권위와 공정성을 따라갈 문예 공모는 없다. 이번 신춘문예를 통해 한국문학의 새 장을 열어야 할 작가들이 배출되었으면 한다. 제2의 한강을 꿈꾸는 문학청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 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